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창세기 14:21-24
2026 년 9 월 20 일 오전 11 시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 주여 도우소서 >

아브람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람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내 사래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결과 바로에게서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 등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재산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뿔뿔히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거짓말과 바로의 호의로 얻은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떠났지만 명예롭게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에게 거짓말을 책망받고 수치를 안은 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 아브람 앞에 다시 한번 엄청난 재물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다릅니다. 거짓말해서 얻은 재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한 뒤 그의 손에 들어온 전리품입니다. 사실 애초에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져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람은 바로 그것을 포기합니다.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왜 아브람은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14 장에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국제전쟁이 등장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네 왕과 가나안 지역의 다섯 왕이 맞붙은 전쟁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가나안 연합군의 참패였습니다. 승리한 군대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사람들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브람의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람은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318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동맹을 맺고 있던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북쪽 단까지 적군을 추격하여 밤에 기습하였고, 마침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격파하였습니다.

1. 가질 수 있지만 가지지 않았다

아브람은 롯만 구해 온 것이 아닙니다. 빼앗겼던 재물을 되찾았고, 사로잡혀 갔던 여자와 사람들도 구출하여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318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여러 왕의 연합군을 추격하여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 왔으니, 아브람으로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힘과 판단을 자랑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엄청난 재물이 아브람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애굽에서는 거짓말을 통해 바로에게서 재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입니다. 소돔 왕도 아브람에게 가지라고 말한 재물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21 절). 헌데 아브람은 가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람은 소돔 왕이 훗날 “내가 아브람을 부자가 되게 하였다”고 말할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23 절). 아브람은 자신의 부와 복의 근원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가지느냐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가지지 않기로 결정하느냐에서도 드러납니다. 도대체 아브람은 어떻게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아브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먼저 만났습니다. 아브람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로 나와 아브람을 영접하였습니다. 또한 살렘 왕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18 절). 멜기세덱은 참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은 이번 전쟁에 참여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람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멜기세덱을 단순히 왕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소돔 왕이 먼저 아브람을 영접하러 나왔지만, 아브람이 먼저 듣는 말은 소돔 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말입니다.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19 절). 유튜브 영상을 보면 첫 번째로 달린 댓글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첫 댓글이 “정말 감동적인 영상입니다”라고 하면 그 뒤의 사람들도 영상의 좋은 점을 찾아보게 됩니다. 반대로 첫 댓글이 “이 부분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문제를 의식하며 영상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먼저 접한 정보가 그 다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앵커링 효과(anchoring effect)’라고 합니다. 먼저 들은 한마디가 그 다음에 보고 듣는 것을 해석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에게는 멜기세덱의 말이 먼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소돔 왕의 말이 들렸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21 절).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브람은 “물품은 네가 가지라”는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말을 먼저 들었습니다. 만약 아브람이 멜기세덱의 말을 먼저 듣지 않았다면 “내가 목숨 걸고 싸웠으니 내가 가져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브람이 소돔 왕의 말을 먼저 들었다면 하나님보다 전리품이 먼저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말을 먼저 들었기에 아브람에게는 전리품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먼저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말을 먼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면 세상의 제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하나님을 알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둘째, 아브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욱 깊이 알았습니다. 아브람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을 떠났고,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람도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19 절).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서 배운 바로 그 표현을 곧이어 소돔 왕 앞에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22 절).

멜기세덱의 입에서 나온 신앙고백이 이제 아브람의 입에서 나옵니다. “천지의 주재.”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소돔의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실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왕보다 높으신 분이라면 소돔 왕에게 잘 보여서 부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돈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면 돈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면 손에 들어온 것을 놓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먹이실 수 있다.” “이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이 기회를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열어 주실 수 있다.” 아브람이 소돔 왕의 재물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재물이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재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경험이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일이 잘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것 같고, 일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아브람도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아브람의 생각을 바꾸었고, 아브람의 입술을 바꾸었고, 마침내 아브람의 선택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목적은 단순히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많이 쌓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선택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하십시오. 하루에 몇 장을 읽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달라지게 됩니다.

셋째, 아브람은 물질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람에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20 상반절). 멜기세덱은 아브람에게 이번 승리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아브람이 멜기세덱을 만나기 전에는 318 명의 병사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온 자신의 뛰어난 전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육과 훈련에 자신의 재물을 투자하여 인재를 양성한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승리의 근원은 아브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3. 드리는 것도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브람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20 절).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얻은 것의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십일조입니다. 왜 아브람은 십일조를 드렸을까요? 아브람은 자신의 물질로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질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모두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며 드릴 때,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를 단순히 교회에 내야 하는 의무금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람의 십일조에는 더 깊은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입으로 고백한 것을 곧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소돔 왕이 “물품은 네가 가지라”고 하였을 때 아브람은 거절합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23 절). 아브람은 돈이 싫거나 더러워서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싸운 아벨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는 그들의 분깃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르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24 절). 젊은이들이 먹은 것, 즉 전쟁에 들어간 비용은 받았고, 함께 싸운 아넬과 에스골과 마르레에게 돌아갈 정당한 몫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몫은 포기했습니다.

아브람은 가질 수도 있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결단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몫을 포기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아브람이 받은 복은 무엇이였을까요? “이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 15:1). 소돔 왕의 재물을 포기한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창 15:5). 또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발견한 가장 큰 복은 소돔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이 소돔 왕의 재물을 포기한 아브람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질 수 있지만 가지지 않아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져도 되는가?”라는 질문보다 더 깊은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나의 복의 근원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내 직장이 나의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내 사업도, 내 통장도, 어떤 사람도 나의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천지의 주재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얻으려다가 복의 근원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브람처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물질로, 그리고 우리의 선택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 Soli Deo Gloria >